

치솟는 물가 속 전북 착한가격업소 '눈길'

도내 372곳 지정 운영... 가격·서비스 좋아 물가안정 등에 기여 행안부,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공모 진행... 11월 30일까지

고물가 시대 착한가격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발 벗고 나선다.

현재 도내에는 총 372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전북자치도는 2023년말 기준 331개소에서 41개소를 추가 발굴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각 지자체가 자체 발굴해 지정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들

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및 주방세제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함으로써 업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각 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시 5% 정도 캐시백 등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와 배달업과의 협업을 통해 할인을 제공해 도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민들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을 통해 가까운 업소를

쉽게 검색하고, 가격과 서비스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지도 앱의 검색창에 '착한가격업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업소를 손쉽게 찾아보고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모는 2개월 만에 1,300여개 업소를 추천받는 등 높은 국민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11월 30일까지이며, 순은 기업매달 1,000개가 지급된다. 공모의 추천 대상은 가격이 주변 시세보

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다.

착한 업소 추천은 1인당 최대 10개소까지 가능하며, 추천한 업소 중 5개가 신규로 지정되면 순은 기업매달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에서 가능하다.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고물가 시대에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시군 등과 협력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강원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어깨동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고향사랑기부제도 안착을 위한 상호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 11일 전북자치도와 강원자치도는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홍보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석해 강원자치도와 함께 제도홍보와 답례품을 교차 홍보하고 쿠키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지역 대표 답례품을 적극 홍보했다.

전북홍보관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관광·체험 분야의

전북·강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상호 홍보로 '효과 ↑'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전북홍보관·답례품 관람객 눈길 사로잡아



특색있는 도 대표 답례품 24개를 전시하고, 답례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 또는 시음 기회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장 기부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인기 답례품 십리향(쌀)을 추가로 제공하며, 박람회에

참석한 수도권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나혜수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강원자치도와 함께한 홍보 활동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대표 답례품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 위기에 놓인 고향에 생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에 도민과 출향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기부자의 선호와 건강한 소비 현상을 반영한 답례품(89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고향사랑의 날(9월4일)을 맞아 기부자들에게 음악방송(KBS가요무대 등), 문화공연, 지역관광, 농촌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다. 지역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다.

착한 업소 추천은 1인당 최대 10개소까지 가능하며, 추천한 업소 중 5개가 신규로 지정되면 순은 기업매달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에서 가능하다.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고물가 시대에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시군 등과 협력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상생네트워크 "유희태 완주군수는 통합 반대 활동 중단하라"

주민투표 없이 여론조사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유감 표명

④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는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는 16일 보도자료 통해 "유희태 군수는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반대 여론을 전달하고, 주민투표 없이 통합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유희태 군수의 끝없는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며, 군수로서 통합 반대 활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 군수의 잇따른 반대 건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즉 법적 관할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방시대위원

회까지 찾아간 것은 운동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완주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등이 모두 나서서 반대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더욱이 반대대책위원회까지 조직돼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통합에 대한 공론의 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부기구(NGO)로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투표 준비 과정을 감시하며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학기 개학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실시 위해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App) 신고 적극 권장

전북특별자치도가 2학기 개학 시기를 맞아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도,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유해환경 감시단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음란·퇴폐 행위 등 유해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지도·

점검한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수거 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들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안전신문고' 앱(App)이나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윤종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지도·

2024년 전북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성료

7-8월 5주간 도내 공공기관·기업서 직무체험 프로그램 하반기 직무인턴 프로그램 참여자 168명 대상 수료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2024년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참여자 1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턴십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수료식에서는 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들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또한, 비대면 소통 간담회와 폐회식이 함께 진행되며, 청년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청년직무 인턴'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기업을 선택하여 직무를 체험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18세부터 39세까지의 도내 청년으로 확대하여, 상반기 152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168명이 선

발되어 직무 체험을 완료했다. 특히, 직무탐색 방법 및 면접 특강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인턴십에 참여한 청년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소 관심이 있었던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배운 실무능력과 직장문화 경험이 앞으로 취업 활동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양질의 기관과 기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청년 인턴십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프로그램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참여 기관과 기업을 모집하며, 11월에서 12월에는 참여 청년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직무인턴 홈페이지(<https://jinter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 연장: 2.5km • 폭: 9.0m (확포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완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개제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권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문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